

# 내 마음이 아는 걸 우주법계에서 다 알고 있어!

## 21면에서 계속

수 없으니깐, 어쩔 수 없이 각본대로 자기 주어진 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자기 주어진 대로 각본대로 돼 있는 거를 벗어나려면 그만큼 고초가 없이 어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어어! 이 짚은 뭐 이상해." 그러죠? "뭘 놓으래? 사랑도 돈도 다 놓으면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미거한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랑도 돈도 다 그 속에 있는 건데 누가 하지 말라나요? 하되, 내것이 아니라 내것이 이 소립니다. 자기 게 아니라 자기 거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똑바로 그것을 잘 아신다면 자기는 관리인으로서 시봉자로서, 자기의 시봉자로서 올바르게 함으로써, 또는 시봉자는 주인에게 "너는 차가 고장났으면 올 바로 고쳐서 끌고다녀라!" 이렇게 하라 이 소립니다. 돌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운전수가 없어도 안 되고, 차가 없어도 안 되고 기쁨이 없어도 안 되고,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 생명이 없어도 안 되고, 본별이 없어도 안 되고, 마음내는 게 없어도 안 돼. 또 마음내는 게 없어도 안 되지만, 육신이 없어도 안 돼. 그러나 세 계 중에 내가 높다고, 어떤 게 높다고 하겠습니까? 높은 게 하나도 없어. 통틀어서 그냥 일심(一心)이야. 일심이 들고 나는데, 삼세심(三世心)이 그냥 들고 나. 삼세심이 일심이야. 일심이 삼세심이라. 과거심(過去心)도 미래심(未來心)도 현재심(現在心)도 그냥 일심이야. 통틀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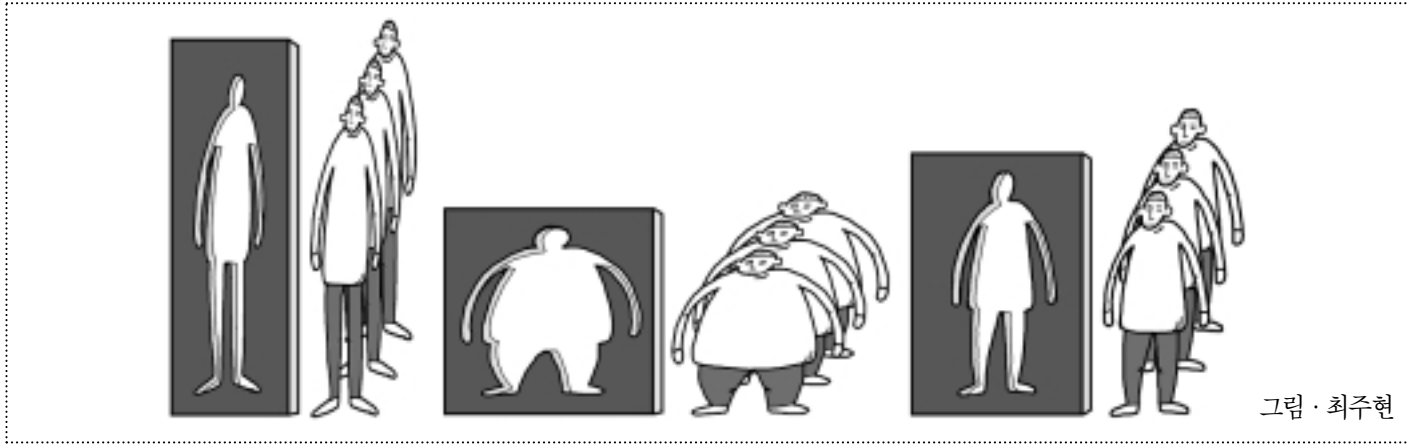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환경에 따라 가다보면 그만 흔들리고, 중심이 없고 집이 비게 돼요. 그럼 그 집에 남이 들어서서 내 집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달마 대사가 "내가 잠시 어디 갔다 오니깐 내 집에 누가 들어왔더라. 그래서 나는 집이 없어서 비워놓은 편 집에 들어가서 털보가 됐다." 이런 말이 있죠? 그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이 그렇게 됐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한 가지 벌이였으면, '어!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을 했나?' 그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달마 대사가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달마 대사로 몸이 바뀌었습니까? 왜 바뀌었느냐 이겁니다. 달마 대사는 재주가 그만큼 없어서 바뀐 겁니까? 남의 집을 뺏을 줄 몰라서

후진 것도 없는 사람한테는, 사실 후진 게 아닙니다. 다. 그것은 너무나 감지되지. 그래서 이것은 천 차만별로 나눠주죠. '스님네가 심부름하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미처 나는 몰랐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어렵구나! 이렇게 중노릇하기가 어려운 줄은 내가 애당초에 생각을 못했구나!' 그것도 내가 생각한 것 아니겠는가. 어렵다는 것도. 그러나 어렵다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를 생각하게 됐다. 왜? 내가 그건 어렵다고 생각할 게 없어. 나 하는 대로 그냥 꾸준히 그냥 꾸박꾸박 가면 되는 거니까, 저를 흐르듯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마음이 아는 걸 우주법계에서 알고 있는데, 그게 무서워서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철칙이기 때문입니다. 남이 알든 모르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그게 괴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롭지 않게 살아야 하는 애입니다.

남이 두렵고 남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게 괴로움을 가져오는 거고,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때는 참, 부모도 없고 불쌍한 애들, 어떤 때는 등록금도 못 내고 그럴 때는 말이죠. 참 그런 거 누가 좋아합니까? 누가 주었다는 거 말해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남의 체면도 있지. 그럴 때 그냥 내주면서도, 그것은 내가 괴로우니까 내가 마음 편안하려고 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내 마음 편안하자고 나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야 내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중노릇하기 참 어렵구나!' 하는 겁니다.

어떤 때에는 빚을 내서 시주를 한다고 가져오는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도로 줄 때가 있죠. '야! 누가 빚 내가지고 오겠어?' 그리고 주면서 '네가 괴로우면 내가 괴로워! 난 괴롭기 싫어. 이게 이자 늘어난 내가 죽겠어. 당신이 죽겠는 것보다 내가 죽겠어. 그러니까 난 이거 안 되겠어. 갖다 줘. 심부름 좀 해!' 이겁니다. 내 심부름 좀 하라고 그래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절에 와서 부처님을 친견 못하고, 없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지 그것 좀 잘 생각해보세요.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안 아픈 사람이나 어떤 스님네들은 "병 고치는 게 중인가?" 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건 이단이다." 겁니다. 이단이 아니라 일단이라도 좋다 이거야. 그것은 당장 내가 아프고 내가 귀찮으니까 하는 거지 내가 일단 되기 위해서, 정법 되기 위해서 이런 공부 한 게 아니다 이거야. 내가 아픔을 겪어왔고, 내가 내 아픔과 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프지 않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내가 부처 되기 위해서 이 공부한 게 아니야.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야. 자연의 섭리야. 이런, 누가 뭐라 하면 어때요?

내가 겪어보니까, 이렇게 살아보니까 야, 참 아픈 것도 누가 대신 아파주지 않고요, 통이 안 나와 대신 통 뉘줄 사람도 없었고, 허허허, 참 괴로운

에 어떤 마음에도, 지금처럼 나이나 먹었으면 그냥 픽 웃고 말았을 텐데... 그때는 그냥, 입이 근 지러워서, 허허허. 그러니까 좀 모자랐죠. "아니, 우리가 변소 안에 드나드는데 부처가 변소 안에 없다고요?" 야, 그렇게 되받았지 뭐니까? 허허허. 그리고 그 스님한테도, 아유, 모자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도, 그때 몰라서 그랬죠. "당신에게는 반박에는, 반질박에는 못 하겠소." 허허, 이랬거든요. 그 왜 그랬나? 그때는 너무 뼈속까지 뺏겨서 아주 눈에 불이 켜질 날 때니까. 그때는 그렇게 느긋하게 배이삭이 숙여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또 무슨 표창장을 주면 '뭘 잘했다고 상장 줬나?' 이라고, 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건데 뭐 스님네들이 날 뭘 주느냐 이거야. 그러곤 그 자리에서 박박 찢어버리는 그런 행태, 그러니까 뭉치 나뻐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나 그런 과정 없이 어떻게 배이삭이 첫번부터 익을 수 있는냐는 얘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저게 바로 내 모습이야', '저게 바로 나야!' 이렇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안 해보고 그렇게 겪어보지 않았더라면... 그분들이 다 스승이야, 내 밑거름이고, 그러니까 그걸 받아줬지, 안 받아줬어도 거름이요, 받아줬어도 거름이예요.

어떤 한 큰스님은 너무 너그럽게 날 받아주시고 불쌍히 생각해주시고, 아주 나이 어리다고 그냥 남몰래 아껴주셨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육을

## 우리가 진화돼서 다시 모습을 바꿔가지고 나올 뿐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당장 시한에 닥치는 일들, 그냥 아슬아슬하게 넘어가는 일들, 어떻게 돼서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넘어갈 수 있었겠나? 박 대통령 당시에 아슬아슬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당시에 왜 그렇게 됐는가? '그렇게 되려니까 그렇게 됐다!' 이라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니깐 그렇게 됐다!' 하는 겁니다. 모두가, 그것이 들어 아니 까닭에 그렇게도 될 수 있는 거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거지만,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도 내 자식이지만 너무 남한테 해롭게 하고 그래서 열 번만 그렇게 끌러가 보세요. "그 새끼는 내 새끼 아니! 가만 뒤, 잡혀가거나 말거나!" 이렇게 해버립니다. 열 번을 타일렸는데도 열 번을 붙잡혀간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문제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주어지는 건데,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주어지더라도 중심은 있어야 된다는 애입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안 돼! 집이 비면 남한테 채어!

뺏긴 겁니까? 그러면 그만큼 공부해가지고도 집 뺏길 정도라면, 집을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다면 그건 달마 대사 자격이 없죠. 하기가. 그런 데 말입니다. 그걸 가르치느라고 말씀을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거를 생각해보십시오.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걸 했으면 한번 음미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 마음의 도로로, 이렇게도 이끌고 저렇게도 이끌고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가난해서 아주 살 수가 없는 사람이라도 그 도로를 안다면 나물죽을 먹고도 꿀벌 웃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멋있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수가 없는 겁니다. 고기 반찬에 잘 먹고선 그냥 흐드러지게 좋아하는 것보다 좀 말이나 멋있는 줄 아십니까? 그 뜻이란.

여러분이 여기 스님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먹이기 위해서 여기 갖다놓습니다. 그러면 좋고 좀더 맛있는 거는 여러분과 같이 공양을 하고, 좀더 후진 거는, 또

## 제아무리 잘 안다고 하더라도 한번 내가 집어먹을 줄 모른다면 그건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해도 누가 대신 피곤해줄 사람도 없고, 누가 대신 울어줄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내 아픔처럼 아프고 불쌍하게, 정말 뼈아프게 아픈 때가 많아요. 그런 분들이 방에 들어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합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어서 가십시오." 이겁니다. 왜? 내가 아픈 거를, 내가 뺏겨 어떻게 어떻게 낫게 하려고 말입니다. 아프기 때문입니다. 얘기 듣기만 하면 됐지 뭘 내가 더 말할 게 없습니까, 괴로운데, 그 사람은 그렇게 괴로워하는데, 모든 게 나 괴롭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빨리 나가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뭣이 좋아서 자꾸 얘기할 맛이 나겠습니까? '어떻게, 처리를 어떻게 하나.' 하고선 좀 잠시라도 이렇게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변소 안에 가서도, 어떤 사람은 무슨 부처가 변소 안에 있느냐고 그러거든요. 예전에 두루마기를 입고 변소에 그냥 들어갔습니다. 급하니까, 아담법석이 났습니다. 두루마기를 입고 어찌 변소 안에 들어갔느냐 이겁니다. 그때

합니다. "저 노장은 도무지, 저 하지않은 애한테 저런다."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누룽지가 한 조각이라도 물에 주느냐고, 세상에! 이 마음 밖에 더 무서운 게 없어요, (주먹을 쥐어 보이시면서) 마음! 아무리 거대하고 잘나도 그런 마음을 나눌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죽으나 사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하지 모릅니까. 그랬던 고로 그분들은 죽지 않았다고 봅니다. 또 여러분은 앞으로 죽는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도, 사람이 진화해서 다시 모습을 바꿔가지고 나올 뿐이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의 차원이 바로 내일의 차원이요, 또 내일이 오늘입니다. 오늘은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87년 2월 15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사)한국불교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한국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연구과정(대학원)

발심을 하고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시간상 제약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자를 위해 한국불교 통신대학에서는 수시로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통신교육은 각자의 근기와 환경에 맞추어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수립되어 있어 시간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 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모집기간	수 시	수 시
수업연한	2년(4학기/각 6개월)	경,울,논,선,밀교 각1년
수업방법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년 2회 합숙 수련)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년 2회 합숙 수련)
전현방법	서류전형	서류전형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영합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영합판 3매

□ 원서교부 : 수시교부 및 입학(교재비만 부담) □ 특선 : 사찰 개원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 통신대학 졸업자에게는 전법사 자격증, 통신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법사, 포교사자격증 수여

즐거우며 수업을 희망하는 자는 나란다 삼장불학원(집계교육) 참조

## 나란다 삼장불학원

사미과 · 사집과 · 사교과 · 대교과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강연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발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불교대학, 불교 교양 대학, 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법사 및 포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또는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를 환영합니다.

### □ 모집학과

학 과	수업방법	교육기간	자 격
사미과	주 2일	6개월	초발심자, 출가를 원하는 불자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
사집과	주 1일	6개월	사미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사교과	주 1일	6개월	사집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대교과	주 1일	6개월	사교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불교대학, 교양대학, 대학원 연구과정 이수자, 법사, 포교사

□ 원서교부 : 2007년 1월 30일부터 □ 입학일 : 3월 5일(월) 오후 2시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 1.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2.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원비

□ 교 수 진 : 활안(한정성)스님, 호안스님, 서무선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통신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통신대학, 대학원 참조

## 불교예술대학

□ 모집인원 : 약간명

□ 수업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7시  
(수시 입학 가능)

□ 강의내용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요점바라  
도량계작법, 다계작법  
사방요신, 법교무  
사물(북, 태징, 목탁 등) 다루는법

□ 지도교수 : 대혜스님